

학교 급식 중단 장기화

역학조사 결과 3~4주 후 나와

2학기 돼야 정상 운영...큰 불편

식중독 의심 사고에 따른 급식 대란 사태의 장기화로 학생·학부모가 상당기간 큰 불편을 겪게 됐다.

25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급식이 중단된 학교들이 CJ푸드시스템 측과 위탁 급식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를 선정하려면 우선 해당 학생들의 식중독 감염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이들 학생에 대한 역학조사 최종 결과가 3~4주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계약 해지 여부는 빨라야 내달 18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때는 여름방학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새 학기인 2학기나 돼야 급식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당국 관계자는 "CJ푸드시스템의 잘못이 드러나면 위탁 급식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며 "잘못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해지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CJ푸드시스템에 위탁한 광주·전남 7개 학교가 계약 해지 후 다른 급식업체를 선정하려면 2~3주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된다. 급식 업체 선정 공고를 내야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업체 선정을 위한 심의 및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조리실·교직원 식당·각종 설비 등 회사 측이 학교에 이미 투자한 비용의 회수 문제가 불거질 경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결국, 급식중단 사태가 벌어진 학교의 학생들은 여름방학 시작 전까지는 도시락 등으로 식사를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광주교대 학생회관 등 방화 4건 잇따라 발생

광주시내 한 대학교에서 40분 사이에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4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4일 오후 2시30분께 북구 풍향동 광주교육대학 대문 동장 옆 창고 뒤편에서 불이 난 것을 허모(16·J고교 2학년)양이 발견, 신고했다.

이어 10~15분 뒤에는 100m 정도 떨어진 학생회관 1·2층 남자 화장실에서 다시 화재가 발생했으며, 학생회관에서 200m 떨어진 교수연구동 '연진관' 1층 남자 화장실에도 불이 났다.

이 대학 학생과 경비원 등은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바로 진화, 쓰레기 통과 화장실 벽 일부가 불에 그을렸을 뿐,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

이 대학에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호남학생음악연대회'가 열려, 많은 학생들이 몰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0~15분 간격으로 잇따라 불이 난 것으로 보아 단독 범인 것으로 추정, 주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위탁급식 대부분 HACCP 적용 안해

(해설 :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 광주·전남 학교급식 무엇이 문제인가

33개교 3만459명 업체 제공 음식 먹어 CJ푸드시스템 7곳중 1곳만 '해설' 도입

광주·전남의 학교 위탁급식 업체 대부분이 식품위생관리를 사전에 예방·감시하기 위한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해설)을 도입·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식품의 보존, 유통 및 소비자 섭취 등의 과정에서 위해물질이 섞이거나 오염되는 것을 미리 완벽하게 차단하기 힘든 등 위생관리에 허점이 많은 지적이다.

◇위탁급식학교 현황 = 광주·전남지역 학교 중 급식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학교 외부에 위탁하고 있는 곳은 초등학교 3곳, 중학교 19곳, 고등학교 20곳 등 42곳(광주 28곳, 전남 14곳)이다. 이들 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고생 3만459명이 급식업체에서 제공한 음식을 먹고 있다.

급식방법은 위탁받은 업체가 학교 내부에 시설을 갖추고 직접 제공하는 '교내위탁'과 다른 곳에서 만들어 배달하는 '외부위탁'으로 나뉜다. '교내위탁' 업체는 광주의 경우 ▲CJ푸드시스템 ▲(주)금호토포피아 ▲리푸드시스템(주) ▲아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식품의 원재료 생산·제조·가공·보존·유통·소비자 섭취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危害) 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위생관리 체계.

라코(주) ▲암마사랑(주) 등 5곳, 전남은 ▲CJ푸드시스템 ▲(주)맛조은 ▲영흥복지원 등 3곳이다.

'외부위탁' 업체는 광주는 ▲해태외식산업 ▲월드푸드뱅크(주) ▲두메외식산업 ▲(주)한빛캐터링 ▲(주)푸른마을외식 등 5곳, 전남은 ▲(주)맛조은 ▲(주)진선 등 2곳이다.

◇미흡한 위생관리 시스템 = 이들 업

체 중 식약청의 '2006년도 1·4분기 HACCP 적용업소'명단에 포함돼 있는 곳은 '(주)맛조은'과 'CJ푸드시스템-보문고점' 단 2곳에 불과하다. 이번 '급식 대란'의 주범인 'CJ푸드시스템'의 경우 송의중·보문고·인성고·송신공고·수피여고, 목포 정병여중·고 등 광주·전남 7개교에 급식을 공급하고 있지만, 단 1곳에서만 'HACCP'를 도입·적용하고 있다.

식약청은 'HACCP'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오염구역과 비오염구역의 구분, 조리장 온도 28도 이하 유지 등을 급식업체에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올해 식약청과 교육청이 도시락 제조·위탁급식·식자재 공급업체 1천 357곳을 점검한 결과, 90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이중 26%인 23곳(광주 3, 전남 20곳)이 광주·전남업체였다.

/임주형기자 jhljm@kwangju.co.kr



폭우에 막힌 도로 호우주의보 속, 25일 하루 81.5mm의 폭우를 견디지 못해 언덕의 흩더미가 무너져 내린 나주시 남평면 서산리 양 도로(남평~화순 간 822호 지방도). 장미전선에 들어간 광주·전남지방은 이날 승주에 최고 92mm의 비가 내렸으며, 26일까지 30~60mm의 비가 더 쏟아진 후 27일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일 전망이다. /나주=남평주기자 mjna@kwangju.co.kr

'직영급식' 광주 운림중을 가 보니...

'직영급식'이 '위탁급식'보다 나은 까닭은?

광주 운림중(교장 장복일)은 지난 2003년 일선 학교에 전면급식이 확대된 이후, 줄곧 '직영급식'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학교와 학부모가 직접 나서 학생의 먹을거리와 건강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이 학교는 영양사(1명)와 조리사(1명), 조리종사원(4명)을 총합해 6명 등을 통해 제공공급을 낸 뒤 권력

각각 1곳씩을 선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신선도'와 '청결'이다. 위탁업체가 경제성을 고려해 '값이 싼' 공급업체를 선발하는 것과는 크게 다르다.

'직영급식'은 이윤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운림중의 경우 650여명의 학생과 교직원 이 1개당 2천500원을 부담하는데, 인건비와 시설비 등을 제외한 1천 700~1천800원(68~72%)이 식자재 구입비용으로 쓰인다. 반면 위탁급식 업체는 1개당 50% 내외인 1천 200~1천300원을 식자재 구입에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육부는 현재 식자재 비용 비율을 60% 이상 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권고사항이어서 위탁급식 업체 중 이를 지키는 곳은 많지 않다.

학부모들은 매일 아침 3명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을 구성해 식자재의 신선도를 검사한다. 조리실의 위생 상태도 학부모들이 수시로 점검한다. 영양사들은 한 달간의 식단을 미리 작성해 교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각 가정에 통신문을 발송해 검증을 받는다.

운림중 장복일 교장은 "학교급식에 대한 제도나 시스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집단 식중독과 같은 위생안전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jhljm@kwangju.co.kr

급식비 70% 식재료비

학부모 매일 검사 참여

'위탁'보다 청결·안전

과 자격증을 기준으로 한 공개채용 방식으로 뽑는다. 영양사와 조리사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위탁업체의 비정규직 영양사보다 신분이 보장되고, 연 1천600만~1천700만원을 받는다. 매년 학교와 계약을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근무의욕도 높다. 또 독립된 지위가 있어 급식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위탁급식 업체의 영양사들은 독자적인 판단으로 움직일 수 없다.

운림중은 음식의 '질'을 결정하는 식자재 공급업체도 1년에 한 번씩 공개입찰을 통해 결정한다. 수산물·축산물·농산물·공산물 납품 업체를



연제2차(동림) 대주 피오레 1,300여세대 중 353세대 353세대 문의 (062)366-4220

택시 운전사 승객 성추행

25일 새벽 6시 30분께 광주시 두암동 에덴병원 뒤 도로에서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영업용 택시 운전사가 승객 김모(여·22세)를 성추행하려다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전국 곳곳 월드컵 응원사고 잇따라

○독일월드컵 한국-스위스전이 벌어진 지난 24일, 전국 각지에서 크고 작은 월드컵 응원 사고가 잇따라 발생.

○이날 새벽 5시10분께 서울시 중구 정동 덕수궁 부근에서 거리응원을 하던 김모(25·대학생)씨가 심장마비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졌다.

○단체응원이 펼쳐진 인천 문학경기장에서는 경기 종료 직후 일부 실망한 관중이 스탠드에서 그라운드로 뛰어내리다가 17명이 발목 등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전주시 금암동 종합운동장에서는 응원을 하던 김모(48)씨가 계단에서 넘어져 이마가 찢어지는 등 3명이 부상. /연합뉴스

홍스페이스 수입가구 이태리가구 전문점 hongspace.co.kr 홍스페이스.kr

전기만 사용하는 태양초 고추전조기 20년 경험과 뛰어난 기술로 탄생한 최고의 유일건조기

스포츠 하얼빈 다이어니 병의원 100459.com

주유일 전국대형유통망 : 주사가님 특이 청정 판매 ₩5000원 (₩2000 대용 200개)